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부흥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95년도 70인전도단 발족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한 특수 훈련

### 4차에 걸쳐 10시간의 강의와 실습

'95 비전 2000운동을 즈음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특수 전도훈련을 하는 70인 전도단(단장: 김광신 장로)의 단원을 새로이 모집한다.

우리교회의 70인전도단은 작년 3월에 첫 결단식을 갖고 강의와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전도훈련을 받았다. 그후 병원전도팀, 축호전도팀, 십야전도팀 등으로 나뉘어 전도활동을 펴왔고, 여름마다 농촌전도대로 파송받기도 하였다.

올해 70인전도단 훈련은 조기철 목사(풍성한 교회)를 강사로 4차에 걸쳐 10시간의 전도훈련과 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70인 전도단원의 자격증이 수여되며 매월 1인 이상을 전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95년도 70인전도단원 희망자는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 교육 일정

- 제 1차 / 10월 24일(화) 오전 10시
- 제 2차 / 10월 25일(수) 오후 12시 45분
- 제 3차 / 10월 31일(화) 오전 10시
- 제 4차 / 11월 1일(수) 오후 12시 45분

\* 주간에 훈련받을 수 없는 성도는 10월 28일(토) 오후 5시 - 10시, 1일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정·소·년·조·청·찬·양·집·회 '그 나라 2000'

우리교회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연합하여 준비한 청소년 초청 찬양집회 『그 나라 2000』이 오는 28일(토) 오후 5시, 1층 예배실에서 그 막을 올린다.

비전 2000운동에 발맞추어 개최하는 이 집회는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경배, 기도와 교제 등을 통해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행사는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계속될 것이므로, 이번 토요일의 『그 나라 2000』은 청소년들을 위해 계속되는 축제의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기도 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형제, 자매와의 교제 속에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쌓아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하자.



## 모이면 기도, 흠어지면 전도



제 5 전도대

●... 오늘은 부서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예배 후에 배부되는 여섯 종류의 전도지는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를 하며 활용하도록 한다.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전도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교회학교	전도대상 지역	찬양대	전교인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임마누엘	나누어가진
중등부, 소망부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가브리엘	전도지로
탁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영동시장		이웃에게
고등부, 장년부	제일생명 - 강남역	할렐루야	
대학부, 청년부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 박귀환 목사 청빙키로



당회는 부목사를 증원하기로 하고 박귀환 목사를 청빙키로 하였다. 박 목사는 1958년 생으로 건국대 법학과 동대학원, 대구대학 사회개발대학원,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금년 5월 2일에 영동포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영동포 중앙제일교회를 섬겨왔다. 가족으로는 김혜순 사모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박귀환 목사는 우리교회 1, 2교구와 중등부를 지도하며, 그간 1, 2교구를 지도하던 장용휘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10월 31일자로 사임한다.

▲지난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 전도대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전도를 평생 처음 해 본다는 성도도 있었다.

▶복음 증거에 앞서 성령 충만함을 기원하는 기도 모임들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금요기도회)



창세기 강해



# 고향가는 길

(31장 1 - 55절)

이종운 목사

20년 전, 형의 위협을 피해 브엘세바에 있던 야곱은 자기의 집을 떠나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고 마지막 6년간에는 많은 짐승을 얻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개척하거나 돌진하는 성격이 아닌 야곱은 인내로 그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내들 역시 아버지를 떠나 야곱과 함께 가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31:3).

## 1. 하나님의 뜻을 안 야곱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란을 떠날 생각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한 7년과 속임을 당한 후 다시 7년, 그리고 짐승을 키우면서 보낸 6년을 합하여 그는 2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밧단아람은 고향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속해야 할 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떼를 더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라반과 그 아들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3절). 우리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혹은 어떤 것을 택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알았을 때에는 행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깨달은 바를 행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 2. 가족의 동의를 얻은 야곱

야곱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으로 자기 길을 갔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계획을 라반에게 말하면 가족과 짐승들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고 온전히 떠날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몰래 도망치기로 작정합니다. 들판에 있는 양무리로 가족을 불러 자기 의중

을 밝혔습니다(5-7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13절). 두 아내도 이에 동의합니다(14-15절).

가족의 지지를 얻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적어도 라반 앞에서의 야곱의 태도는 옳았습니다. 아내들은 야곱이 강해서라기 보다는 옳았기 때문에 야곱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17-18, 21절).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 길르앗까지 왔습니다. 3일길의 육신적 피로보다는 심리적 압박이 더 컸을 것입니다. 2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하듯 지금 야곱은 라반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 3. 라반의 추격

야곱이 도망한지 3일 후 라반은 이 사실을 알고 친척들과 함께 야곱을 추격합니다. 7일 후 야곱은 겨우 20마일 정도 갔고, 라반의 빠른 추격으로 그들은 길르앗에서 만납니다. 라반의 그의 신앙을 도적질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라헬이 감춘 것을 모르는 야곱은 분노하며 자신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31, 32절). 그러나 드림빔을 깔고 앉아 감추고 있는 라헬은 놀라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야곱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간 무고하게 당한 고충과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한 사실에 대해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라반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할 말을 잃고 모든 것을 야곱에게 양보한 채 돌아서고 맙니다.

## 4. 미스바의 축복

라반이 비로소 야곱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그들은 언약의 돌무덤을 쌓습니다. 돌을 가지고 하나는 기둥을 만들고 또하는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라고 했습니다. 아랍어입니다. 라반이 증거의 무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진 '갈르앗' 이라 하였고 히브리어로는 '미스바' 로서 이는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잠28:1). 궁지에 몰리게 된 라반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49절). 그

가 하나님 신앙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더 이상 야곱을 감독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라반으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의 증인 되셨습니다. 그 이후 라반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라반은 세상에 속한 자의 대명사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을 인정했으며 야곱을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교만과 물욕과 질투심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만을 향유하려 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요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 였습니다.

세상은 라반과 같은 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곱을 조롱합니다. 야곱이 모자란듯하나 우리도 야곱처럼 고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생의 나라에로 우리 길을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 산고(産苦)

한국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기 전 땀통 위에 놓여진 자기 고무신을 다시 한 번 바라다보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정녕 아기를 순산하고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문지방이 흐늘거리고 대들보가 내려앉은 산통을 거쳐야만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잉태된 이들을 반드시 이 세상에 탄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올던 엄마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자람이 될 진리의 아기를 낳아야 한다. 이같은 큰 희망을 품은 자마다 오래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심방일기 - '서울교회에 온지 이제 한 달 반'

# 으르렁대는 개를 코앞에 만나도...

김명헌 (목사, 10, 11, 12교구 지도)

**대**심방이 10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부임한지 50일 남짓된 내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교구 식구들을 파악하는 일이다.

지난 주에는 10교구 구역식구들과 인사할 기회를 가졌다. 성도들의 따뜻한 정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하신 이종윤 목사님께서서는 어쩌면 그리도 성도들 개개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내가 맡은 교구 식구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에 대해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성도들 모두가 교회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했으며 특별히 비전 2000운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었다. 당혹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서울교회에서는 관혼상제가 신중하고도 특색있게 치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번 실습을 거쳐야만 익숙해질 것 같다.

여러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필요한 조언을 주셔서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 또한 내가 마음 깊이 새길 배울만한 일이었다.

**퇴**촌의 박 집사님 댁에서 교구 연합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맑은 공기를 즐기며 잠시 들을 거는데 거의 장정 몸체만한 토니(도벨만중 세퍼드, 박집사님 댁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그만 쇠사슬이 끊어졌다. 허연 이빨을 드러낸 채 바로 나의 코 앞에서 으르렁거리는데 얼마나 떨었던지... 다행히 박집사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빨리 오셔서 살려(?)주셨기에 망정이지... 우리 곁을 스치는 많은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지**금 10, 11, 12교구에 속한 20개 다락방 230여 세대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 형편을 숙지해야하는 일을 제일의 과제로 삼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 (잠언27장 23절).

전도에 도움이 될만한 "책"



### 『주님의 전도계획』

전도하고자 하는 성도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복음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전략을 밝혀 전도에 대한 바른 지침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전도 원리들을 적용하기 위한 성경공부 지침도 포함되어있다. (로버트 콜먼 저 / 홍성철 역 / 210면 / 3000원 / 생명의 말씀사)

### 『생활전도』

보통 전도자라고 하면 어깨띠를 두르고 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시장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쉽게 떠올린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 책은 우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생활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가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조셀 앙드리치 저 / 오성현 역 / 256면 / 4,500원 / 두란노)

■ 자매교회 방문기

## - '작은형제교회' 의 작지 않은 포부 - 4천여평에 세워질 장애인들의 공동체를 꿈꾼다

박진희 (집사, 7교구)

단풍이 점점 물들어가고 하늘이 무척이나 높고 푸르렀던 가을날. 지난주 우리 7교구의 금요 구역예배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있는 '작은형제교회' 를 방문하였습니다. 작은형제교회는 우리 서울교회가 추진하는 농어촌 선교운동 '100교회운동' 의 일환으로 7교구가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이종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교회는 이미 올봄부터 우리 다락방에서 방문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던 차에 작은 형제 교회가 현당하게 되어 비로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광활한(?) 7교구의 사정 탓으로 모이는 시간에 다소 차질이 있기는 했으나 8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2대의 차량을 이용, 미사리를 거쳐 팔당대교를 지나 양평으로 이어지는 먼 길을 달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한 깨끗한 헌옷과 생필품, 장로님의 헌금을 가지고 약도로 찾은 초행 길이었지만 모두 소풍가는 국민학생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면서 길을 몰라 이곳 저곳에서 약도를 내밀었을 때 일행이 받은 한결같은 친절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작은형제교회에 도착했을 때 주위 형편 탓으로 심자가를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정집같은 따뜻한 분위기의 가옥에서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 두분이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었습니다.

비록 현재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기증받은 4천여평의 산간지대에 장애인과 빈민환자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함께 숙식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는 설명은 결코 작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곧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

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무공해 야채 비빔밥 점심과 옥수수새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귀가 시간을 맞추려 돌아서면서도 길지 않은 시간 느낀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따뜻한 정은 우리를 자꾸만 뒤돌아 보게 했습니다.

귀로만 듣고 어렵פות이 생각하고 있던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너무나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자매교회를 도울 것인가를 숙제로 던져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깊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님, 이 생명을 주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게재합니다.)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오영하	최기성 김경숙 강효일	무 명	신인경	김형권	윤창호 허동준 김삼자
김원웅	김태열	무 명	유항순 신현관 신승훈	이영숙	오애순 김동국 김진기
유후자	이일홍 이한용 이광용	무 명	양한수 김영준 이승관	김강주	원용화 김현수
김일용	윤석재 이관철 탁병희	심화숙	소병국 이정자 송은숙	이양희	오상현 오윤석 조명희
박종민	이구선 김용근 이연희	신두호	최은석	유복달	임기진 정숙자 유경주
박진희	박경옥 이말숙 박병욱	무 명	송민희 이창현	최 완	황공석 신창숙 장근식
고영철	전원수 박종순 전유섭	무 명	황영구 박중익	조봉환	박의열 박돈열 박삼열
이명영	김성복 유경열 한용현	오혜은	박영원 박 철 박철웅	정숙자	송인자 이명훈 이명신
김영연	김성원 김계옥 김동찬	오은미	박병수	최재훈	조정안
김중수	박문현 김강현 이복희	무 명	송창식 강성자 서상근	남태순	박진태 정해공 박희범
송금자	김대구 송준설 예석희	무 명	정달상 서정자 정재은	김윤자	김성배 양복수 김성진
이복규	홍준표 이복규 유미숙	무 명	정 현	김용숙	유규호
이정숙	최문호 이기연	무 명	조광수	김용숙	오승중 신재분 김용은
박명석	이정현	무 명	안재근	김용숙	오갑식 권귀숙
김진경	고경화	박양숙	이선경 주성우	권재현	한창훈 한 철
최영숙	양재안 허 흥	무 명	임상원 노영숙 이승희	오은경	김정은 이옥선
무 명	김현순 박혜영 박혜일	무 명	고기성 김소희 서정복	홍진선	송지은
무 명	박준원	무 명	정구의 조용기 최명희	홍지민	고은미 이혜진 채병만
무 명	유광호	무 명	변안국 김광연 이현옥	채수풍	황봉일 진 철 홍봉권
		무 명	나도길 나정균 임순희	조광기	조광기
		무 명	박순옥	최경애	진승규 진호식 김의섭

■ 소식

###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 성가합창제에서 일등상 수상

서울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 제 8회 성가 합창제가 14개 교회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목), 소망교회당에서 열렸다. I부 예배에 이어 II부 성가제는 박태희 집사(연합회 음악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우리교회는 호산나 찬양대(지휘: 서희숙 집사, 반주: 홍혜란 선생)를 중심으로 여성찬양대원들이 참가하여 1등상을 받았다. 이 1등상은 이날 참가한 14개 교회가 모두 공동 수상한 것으로, 성가제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찬양드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실히 드러내었다.



### 대학부 정기총회

대학부에서는 오는 11월 5일 (주일) 대학부 집회시간에 정기총회를 가진다. 이 날 총회에서는 정·부회장 선거와 회칙 개정, 그리고 대학부 부흥을 위한 기타 안전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 대남주차장 사용증지

#### 주차, 교통질서지킴이에 앞장서기를

그간 증일에 사용하던 교회 맞은 편인 대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교회 부근의 삼성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사고가 빈번한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질서와 주차질서를 지키는 일에 성도들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금주의 '95비전 2000운동

- ▶ 전교인 (부서별) 노방전도 / 주일 I, II, III부 예배후
- ▶ 전교인 합심기도회 / 찬양예배 후
- ▶ 비전 2000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 다니엘 기도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 ▶ 70인전도단 훈련 / 제 1차교육(24일 오전 10시) 제 2차 교육(25일 오후 12시 45분) 1일 집중훈련(28일 오후 5시 - 10시)
- ▶ 비전 200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 찬양집회 - 『그나라 2000』 / 28일(토) 오후 5시 - 1층 예배실에서(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연합).
- ▶ 연속기도회
- ▶ 노방전도, 축호전도 및 잃은 양 찾아 나서기

#### ■ 기술 인터뷰



이런 모습이었으면 ...

● “문서선교와 방송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급소는 설교테이프와 서적의 구입이 용이하도록 성도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위치하였으면 합니다” (유복한 집사)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교회당이 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명숙 권사)
- “몇몇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여서 믿음과 연합의 아름다운 기초로 잘 다져진 교회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윤자 권사)



**학습·세례식** 지난 18일(수) I, II부 예배시 10월 학습,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은혜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케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다.

#### ■ 목회자 동정

\* 이종운 목사는 광주광역시 YWCA 대강당에서 가지는 <126 나라를 위한 기도회> 월례 모임에서 “성서적 역사인식”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대전신학교(통합측) 강당에서 열리는 개교 4주년 기념강연회에서 “미래 목회전망과 교회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 ■ 교우 동정

- \* 정무균·이영희 집사(2교구) 가정은 25일, 양재동에 『명동칼국수』를 확장 이전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 \* 손연남 집사(8교구, 임마누엘찬양대원)는 수도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2일에 정농 삼거리 부근에 베들레헴 기도원을 개원했다.

####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① 10월 23일 - 제 1, 2교시 / 어떻게 교회를 전인 회복의 센터가 되게 할까? (크라인 벨 박사)
- ② 10월 3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기독교 사회 윤리와 인성회복 (고범서 박사)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시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 비전 2000운동 기도제목 ●

1.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 복음 전할 기회와 환경, 그리고 생명을 주옵소서.
3.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4. 잃은 양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며, 다락방마다 배가되게 하옵소서.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게 하옵소서.
7. 복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